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SWEET LITTLE THING

가제 : 달콤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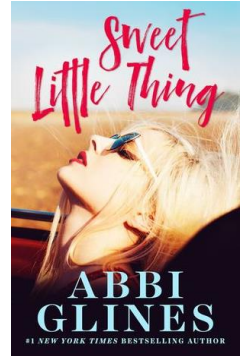
저자 : Abbi Glines

출판사: Abbi Glines Publishing LLC

발행일: 2017년 9월 14일

분량 : 26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애플 아이북스(iBooks)에 독점 출간되는 ‘스윗(SWEET)’ 3부작 첫 번째 이야기

★ 서로 싫어할 수밖에 관계로 만나 비극적인 사랑에 빠진 두 남녀의 이야기

포티아 반 알렌이라는 생전 처음 듣는 이름과 주소가 적힌 쪽지를 엄마가 건넸을 때, 벨루아는 그게 누구이고 왜 갑자기 이런 쪽지를 주는지도 물어볼 수 없었다. 생과 사를 오가는 엄마를 지켜보면서 그런 궁금증이 떠오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잠자코 받아 쥔 그 작은 쪽지는 바로 며칠 뒤 벨루아와 쌍둥이 여동생 하이드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쪽지를 건넨 다음 날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세 식구가 단출하게 살아가던 트레일러도 당장 비워줘야만 했다. 장례식이 끝날 무렵, 집 주인은 두 달치 방세가 밀렸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건네며 벨루아에게 돈을 정리하지 못하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불과 3분 차이로 태어난 동생이지만 다운증후군 환자라 똑같은 열아홉 살이 될 때까지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동생 하이드의 손을 붙잡고, 벨루아는 그 날 정든 트레일러를 나섰다. 그리고 유일하게 알고 있는 주소, 엄마가 준 쪽지에 적힌 그곳으로 무작정 떠났다.

포티아는 친절하지도 다정하지도 않은 차갑고 메마른 여자였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포티아를 두 말 않고 받아주었다. 요리부터 청소까지 집안 일을 돌보던 하녀가 마침 은퇴할 시기가 되었기에, 그 하녀의 자리에 벨루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하이드는 같은 집에 둘 수 없다는 것이 포티아의 조건이었다. 벨루아는 숙식과 일주일에 50달러의 급여를 받는 대신 하이드를 포티아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요양 시설에 맡기고 그 비용을 포티아가 대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벨루아는 밥보다 커피와 와인을 더 많이 마시는 포티아의 예민한 신경을 맞춰가며 시중을 들고 세탁실에서 겨우 잠을 자고 일어나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넓은 집안 곳곳을 쓸고 닦는 생활을 시작했다. 몸도 마음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뿐인 가족, 하이드를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이 포티아밖에 없었기에 무조건 참기로 했다. 그러나 6개월간 잘 버틴 벨루아를 나가 떨어지게 만들 주인공이 나타났다. 포티아의 아들인 재스퍼였다.

스물한 살인 재스퍼는 방학을 맞아 수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고 첫 날부터 벨루아를 놀라게 만들었다. 하녀가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는가 하면 입만 열면 거친 욕설이 튀어나오고 벨루아에게 다짜고짜 밥을 차려내라고 난리를 부렸다. 게다가 혼자 온 것도 아니었다. 포티아에게도 전혀 예고하지 않은 채 친구들까지 데리고 온 것이다. 하지만 벨루아를 놀라게 한 일은 따로 있었다. 오래 전 세상을 떠난 재스퍼의 아버지가 집과 회사를 남긴 사람은 포티아가 아닌 재스퍼이고, 그가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될 때까지 포티아는 임시로 그 재산을 보유했 뿐이라는 사실이었다. 하이드의 미래를 쥐고 있는 사람은 포티아가 아닌 재스퍼라는 사실에 벨루아가 당혹스러워할 새도 없이, 도를 넘는 재스퍼의 짓궂고 무례한 주인 행세는 나날이 심해졌다.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자신은 물론 친구들의 자질구레한 시종까지 들게 만드는 그 거만한 태도 때문에 포티아는 눈 코 뜰새 없이 하루 종일 온 집 안을 뛰어다녀야 했다. 일주일에 한 번 하이드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시간마저 줄어들었다. 마음대로 벗어날 수도 없는 이 족쇄 같은 생활에 벨루아가 서서히 지쳐갈 때쯤,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토록 벨루아를 깔아뭉개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던 언젠가부터 묘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유치한 어린애 장난처럼 그 동안 벨루아를 못살게 굴었던 이유는 사실 좋아하는 감정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벨루아 역시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한다. 서로의 마음을 힘들게 확인한 두 사람은 마침내 뜨거운 사이로 발전하지만 그 낯새를 눈치챈 포티아는 예상대로 못마땅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포티아의 반응은 단순한 심술이 아니었다. 벨루아도 재스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청천벽력 같은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두 연인에게 포티아가 건넨 종이 한 장, 하이드의 출생증명서에 적힌 친모의 이름은 벨루아를 맨 처음 포티아에게 보낸 엄마와 포티아의 놀라운 관계와 20여 년 전, 벨루아가 태어나기 전 일어난 비극적인 고통의 시간을 모조리 폭로하는 폭탄이 되었다. 겨우 기댈 곳을 찾았다고 생각했던 벨루아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붙잡는 재스터를 뒤로 한 채 포티아의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다. 불쌍한 두 연인의 관계는 이대로 끝이 나야만 하는 것일까? 총 3부작으로 기획된 ‘스윗’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 2편인 『SWEET LITTLE LIES』와 3편 『SWEET LITTLE MEMORIES』가 이번 달과 11월에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저자 소개>

애비 글라인스(Abbi Glines)는 『Rosemary Beach』, 『Sea Breeze』, 『Vincent Boys』 등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월 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소설을 다수 발표한 소설가다.

제목 : THE DEVIANTS

가제 : 엇나간 아이들

저자 : CJ Skuse

출판사: MIRA Ink

발행일: 2016년 9월 22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프랑스 판권 계약 체결, 생 에티엔 지역 대학생들이 뽑은 ‘2017년도 대학생이 뽑은 YA 소설 상’ 수상

★ 「텔레그래프」 선정 2015 최우수 YA 소설 『Monster』 작가의 이름을 널리 알린 소설

★ “심장을 멎게 할 반전이 기다리는, 복수와 정의, 회복의 이야기” – 「가디언」

★ “전율을 느꼈다. 대담하고 놀라운 소설.” – 소설가 아만다 크레이그

심각하게 고민할 것도, 신경 쓸 것도 없이 그저 깔깔대고 웃고 떠드는 일이 하루를 가득 채웠던 명랑한 아이들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면, 그 이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기념품 엽서에 담긴 사진만 봐도 훌쩍 여행을 떠나고픈 마음들이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두 눈에 담기 위해 매년 주민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꼬마 시절부터 붙어 지낸 엘라와 맥스, 코리, 펄론, 제인이 그 좁은 동네에서 서로를 외면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비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가장 고민 없이 뛰어 놀아야 할 나이에 깨달은 다섯 명의 아이들은 ‘무적 5인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각자 고립된 세계 속에 꽂꽂 숨어버렸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무섭고도 놀라운 세상의 원칙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긴 세월을 지나 마침내 드러난 사연, 작은 아이들이 억지로 집어 삼켜야만 했던 추악한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잔혹하다.

‘무적 5인방’이 해체되고 각자 뿔뿔이 제갈 길을 간 뒤에 남은 사람은 엘라와 맥스 두 사람뿐이었다. 엘라의 열두 살 생일 파티가 열린 날, 작은 컵 케이크와 밀크셰이크를 앞에 놓고 맥스의 아버지가 소유한 해변가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가 끈끈한 친구 이상의 마음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둘의 풋풋한 사랑은 5년이 넘도록 이어져, 다른 친구들과 소원해진 뒤에도 둘은 연인으로 남았다. 맥스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학교 친구들만큼 애를 쓰지 않아도 늘 좋은 성적을 받는 똑똑한 아이로 자랐지만 아버지의 제안대로 공부를 포기하고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었다. 두 사람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자 각종 사업을 대대로 이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재력을 키운 집안의 자제답게 맥스도 일찍부터 사업가 기질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와 달리 지극히 평범하거나 가난한 쪽에 가까운 집안에서 나고 자란 엘라는 육상 선수가 되어 국가 대회 출전을 꿈꾼다. 땀에 흠뻑 젖어 훈련에 매진할 때가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엘라는 맥스와의 경제적 격차 때문에 소소하게 말다툼을 벌이긴 했지만 이미 어릴 때부터 익숙

한 일이라 둘 사이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엘라의 열일곱 살 생일을 전후로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다. 맥스는 엘라와 한 단계 더 나아간, 깊은 관계를 간절히 원했지만 엘라는 이상한 증상에 시달렸다. 마음은 맥스와 다르지 않고 그의 요구에 응하고 싶은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토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상황이 몇 번이나 반복되자 두 다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분명 엘라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엘라와 맥스의 관계가 곤란한 상황에 봉착했을 즈음 과거의 ‘무적 5인방’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던 펄론이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뇌성마비로 늘 못된 아이들의 놀림을 받던 코리가 학교에서 그냥 넘길 수 만은 없는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섯 명은 옛 친구가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 자리에 모인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은 5인방이 흩어지게 만든 사건, 5년 전 맥스의 누나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날의 기억을 되살리고, 각자 다른 이유로 파문으려 했던 그 시절의 끔찍한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어릴 때부터 수영을 너무 좋아해서 늘 수영복을 입고 물 속에서 살았던 엘라가 수영을 그만둔 건, ‘네가 수영복을 입고 날 꼬셨다’고 꾸중한 사람 때문이었다. 자신의 비정상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한참 어린 여성들은 물론 어린 소녀들, 심지어 다 자라지도 않은 애기들까지 건드린 괴물 같은 이 존재는 자신이 건드린 아이들을 ‘엇나간 것들’이라 칭했다. 그 모든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벌써 욕망에 눈을 뜨고 자신을 먼저 유혹했다는 것이 이 악마 같은 사내가 뻔뻔하게 내세운 핑계였다. 엘라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 괴물에게 제압당했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맥스는 복수를 결심한다. 엘라의 비밀을 아는 코리와 가장 처참했던 순간 엘라의 곁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던 제인이 차마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맥스는 엉뚱한 대상을 범인으로 찾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고, 엘라를 위해 마지막 타격을 가하려던 순간 마침내 모두가 입을 열지 못했던 비밀이 공개된다. 맥스의 친구들이 맥스에게는 꺼내지 못한 이야기, 무적 5인방에게 늘 흥미진진한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던 맥스의 누나가 난데없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진짜 이유가 엘라의 입에서 흘러 나온다.

다섯 명의 아이들을 통해 돈과 권력, 명성으로 켜켜이 쌓아 올린 거대한 황금성에 숨어 범죄를 일삼던 괴물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을 엘라의 시선에서 따라가는 이 소설은 작은 마을에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와 사회적 지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어쩌다 그토록 소름 끼치는 성범죄가 오랫동안 숨겨지고 이어질 수 있었는지 낱알이 보여준다. 그리고 한 사람의 비뚤어진 욕망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고통스러울 만큼 생생하게 그려 보인다.

<저자 소개>

C.J. 스쿠스(C.J. Skuse)는 영국 바스 스파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공부하고 동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Pretty Bad Things』, 『Rockoholic』, 『Dead Romantic』, 『Monster』 등 YA 소설로 이름을 알렸다.